

월요광장

말해도 괜찮아



정봉남
순천 기적의도서관장

“엄마, ‘미투 운동’이 뭐예요?” 뉴스를 보던 아이가 질문을 했을 때, 부모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 주어야 하는지 난감하다. 아이들은 차리리 몰랐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몰라도 된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어서 도움을 청했을 것이다.

도서관에서는 어린이들이 바른 성의식을 갖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소개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어린이가 들려주는 이야기, 나쁜 어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법,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침서, 내 몸의 느낌을 이해하고 존중해요, 어린이 성폭력 더 이상 쉬쉬하지 마세요’ 같은 내용이다.

그 가운데 성폭력 피해 어린이가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말해도 괜찮아’(제시 글·그림, 문학동네)는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제시는 아홉 살 때 이 책을 처음 썼다. 삼촌에게 성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하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상처만 키우고 있었다. 스스로를 비난

하고 겁을 내며, 혼자서 아픈 비밀을 지키느라 악몽에 시달렸다.

그러나 다행히도 제시는 뭔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먼저 말을 꺼냈다. 제시가 그 일을 처음 겪게 됐을 때부터 부모님께 말을 꺼낼 때의 심정, 그리고 말을 함으로써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때의 끔찍한 기억이 자신을 괴롭힐 때 그것을 극복하는 자신만의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생생하게 이야기한다.

“너를 돕는 사람이 나타나 때까지 말하고 또 말하렴. 너 혼자 무서워하며 나쁜 꿈을 꾸지 않아도 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에게, 제시가 직접 들려주는 말은 어떤 어른도 할 수 없는 지지와 응원의 말이다. “말해도 괜찮아. 네가 말하면 도움을 받게 될 거야”라는 메시지는 말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해, 그리고 말을 함으로써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현실과 나아가길 일깨운다.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 네게 어떤 일이 일어나건 그런 네 잘못이 아니거든.”

성폭력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역학 관계 중 하나가 ‘비밀’이라고 한다. 비밀을 깨지 않는 한 고통은 피해자가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고립은 성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고통과 혼란을 악화시킨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들이 혼자자 아니며 누군가에게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말

하는 것은 좋은 것임을 알게 해 주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겪은 사람은 비난받는다느는 느낌을 갖게 되고, 자신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신이 분명히 나쁜 사람이거나 이상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혼자자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수치심과 고립감은 완화될 수 있다고. 스스로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의 의미와 함께 적절한 치유를 가능하게 한다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존자들이 공감을 통해 연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겪은 일을 알리고 ‘미투 해시태그’(#MeToo)를 붙여 연대의 의지를 밝혔으며 특히 권력형 성범죄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을 대상화하거나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의 폭력적인 민낯을 보면서 분노하는 시간은 고통스럽다. 가부장제 언어를 내면화하고 살아온 세월만큼 남성이 대변하는 주류 사회에 대한 혁명적 사고의 전환 없이 여성의 배제와 종속이라는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진정한 적폐 청산은 이제 시작인지도 모른다. 이것이 어디로 향해 가는가를 주시해야 하는 까닭이다. 역사의 가장 끔찍

한 비극은 나쁜 사람들의 짜증 나는 아우성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의 오싹한 침묵 때문에 일어났으니 말이다.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를 쓴 작가가 ‘차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의 말을 빌리면, 지금 우리가 아이들에게 곱씹을 하고 있는데 가장 곱씹을 것은, 남자는 모름이기 강해야 한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그들의 자아를 아주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 남자들이 스스로 더 강해져야 한다고 느낄수록 그 자아는 더 취약해지고, 여자아이들에게는 남자의 그 취약한 자아에 요령껏 찔러주고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젠더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은 아직 충분히 진화하지 못했다. 그러니 ‘미투 운동’으로 고정된 성역할, 여성에게 끊임없이 강요되는 희생과 헌신이라는 성차별적인 문화를 바꾸는 기회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 불공평함과 억압에 대해 분노하고 이 분노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모두가 집단의 명령에 굴복하여 악사를 짓밟을 때 단 한 명만이라도 용기를 내어 불의와 폭력을 향해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희망은 있는 것이다.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끝내 인간이게 만드는 힘, 그것은 고통받는 타인을 향한 공감과 존엄에 있다. “때론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믿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말해야 해요.”

社說

촛불·탄핵 1년, 지방선거에 386 바람 부나

“피정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정미 당시 한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어내려 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문이다. 지난해 3월 10일 오전 11시21분이었다. 이후 딱 1년이 지났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사회 전반에 탈보수와 경향을 불러왔다. ‘촛불 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여전히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90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다. 표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현 재의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민주당 후보는 어떤 인물로 채워질까.

지금까지 드러난 광역 단체장 후보 면면을 보면 386세대의 전진배치가 확실해 보인다. 386세대란 지금은 나이가 50대에 접어들었지만 당시 30대로 80년대에 대학에 다녔으며 1960년대에 태어난 이들로, 학생운동과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세대를 일컫는다.

386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었던 안희정 충남 지사가 미투 운동의 여파로 물락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광역단체장 후보군에는 많은 386세대가 포진돼 있다. 우선 386 만형적인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어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경기도지사 선거의 경우 민주당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경선이 곧 본선’일 가능성이 높는데 전해철 의원이 이재명 성남시

장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도 가까운 ‘친문’의 대표격이다.

민주당 부산 시장의 후보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있는 김영춘 의원이 최근 시장 출마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촛불 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여전히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전남지사 선거도 유력 추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호 의원이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김영록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구원 등판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386세대인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비서관직을 사퇴하고 경선에 뛰어들 것이 확실시된다. 광주 시장 선거 역시 386세대인 강기정 의원과 최영호 남구청장이 도전장을 내밀어 시민사회 세력인 현 운영진 시장 및 민행배 구청장 그리고 이용섭 전 의원과의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결국 탄핵과 촛불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 양상을 보면 민주당 후보의 경우 386 민주화 세대의 전면 배치가 두드러진 특징이라 하겠다. 이 같은 전국적인 민주 인사 지망선거 후보 바람은 촛불로 세운 이 정부 민주당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경선이 곧 본선’일 가능성이 높는데 전해철 의원이 이재명 성남시

법조칼럼

복지 융합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자



이대규
법률사무소 소통 변호사

요즘 시내버스에서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는 거의 없는 듯하다. 간혹 그런 젊은이를 보면 새삼스러운 번쩍 쳐다보게 된다. 그렇다고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젊은이가 특별히 불량하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핵가족의 시대, 한 가정에 아이가 하나나 둘 정도인 시대, 학생들은 방과 후 및 공휴일 내내 학원을 전전하면서 어른보다 더 많은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시대,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해 콘텐츠

를 소비하고 정보 검색을 해야 하는 시대, 무한 경쟁에 내몰리는 시대가 돼 요즘 젊은이에게는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젊은층의 이러한 생활 방식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개인주의의 극대화 내지 이기주의의 팽배는 개인간 소통의 부재와 세대간 사고 방식의 차이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게 하고 있다.

특히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세대간의 가치관 차이는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이에 더해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복지 자원 및 일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세대 갈등을 한층 격화시키면서 ‘노인 무시’를 넘어 ‘노인 혐오’ 현상으로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대 갈등을 넘어 사회 분열을 초래하므로 이를 시정할 효과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필자의 머리에 우선 떠오르는 단어는 사자성어로 역지사지(易地思之)다.

이런 맥락에서 아동, 청소년과 어르신 이 서로 부대끼면서 이해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로 아동복지, 청소년 복지, 노인복지의 융합을 제안해 본다.

물론 그 융합은 아동 복지, 청소년 복지, 노인 복지의 단순한 합이 될 수 없고, 아동, 청소년과 어르신의 건강한 상호 작용을 생성하고 촉진시키는(융합) 프로그램 및 실천이어야 한다. 이러한 융합 프로그램으로서 복지의 대상인 아동, 청소년, 어르신에게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봉사를 상대 방에게 하게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예컨대, 청소년이 어르신에게 책을 읽어 준다든지, 말동무가 되어 준다든지 하게 하고 그에게 소정의 봉사료를 지급하고, 어르신의 경륜과 지식·기술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게 하고 역시 봉사료를 지급한다면,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는 복

지 자원 및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복지 자원 및 일자리를 위한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가 되므로, 상호 존중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이러한 융합이 성공적으로 발전한다면 세대간 융합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아동, 청소년 및 노인 복지 융합에 대한 연구·지원·강화 정책이 필요하다.

현 정부에서 보편적 사회복지의 확대를 복지 정책의 기조로 천명하였으며, OECD 국가 기준에 비추어 불배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 복지 예산은 장차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에 필자는 아동, 청소년 및 노인 복지 융합을 법제화하여 장차 증가되는 재원의 일정 부분을 아동, 청소년과 노인의 복지 융합을 위한 시설·기관의 설립이나 융합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발포명령 거부 안병하 ‘인권 경찰’ 표상으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한 고(故) 안병하 전남도 경찰국장(경무관)이 치안감으로 공식 추서됐다. 그제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안 치안감 추서식이 열리기도 했다.

안 치안감은 5·18의 숨은 영웅이었다. 1980년 5월 경찰국장 재직 시 시위대에 발포하라는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했다. 시민들의 희생을 우려해 경찰이 소지한 무기를 회수하고 과잉 진압 금지를 지시했다.

그는 이 일로 직위 해제된 뒤 국군 보

안사령부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2003년 광주민주유공자, 2006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됐지만 경찰 처원의 명예 회복은 없었다.

경찰청은 지난해야 그를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해 전남경찰청에 추모 흉상을 건립하고,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안 치안감은 전두환 신군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시민의 목숨과 경찰의 명예를 지켜냈다. 경찰은 물론 우리 모두가 고인의 숭고한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 고

교통사고 줄이기로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홍남진
광주교통문화연구소원장

인명은 재천이라 했다. 사람 목숨의 값고 짧음이 하늘에 달려있다고 해서 비롯된 말이다. 현대 요즘 와서 보면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는 생각이 든다. 목숨이 하늘에 달려있기도 하지만 차에 달려 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인명재차’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해 광주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무려 117명에 이르렀다. 2016년 85명에 비해 32명 38%나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또한 OECD(35개국) 평균 5.3명인데 비해 광주 지역의 경우 7.6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사망자수가 급증함에 따라 교통 문화 지수 또한 2016년 전국 5위에서 지난해 14위로 9단계나 하락했다. 안전 도시 광

주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교통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한 사람으로서 면목이 없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해서다.

광주교통문화연구소원에서는 지난해 어린이, 어르신, 운수종사자 등 12만 명을 대상으로 생애주기형으로 다양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첨단지구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에서는 북부경찰서 교통과 직원들이 어린이 6만8211명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했다. 또 미처 이곳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시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중학생들을 위해서는 화재나 지진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 실제나 다름없는 안전 체험 교육을 실시했고, 수학능력 시험을 마친 고3학생들을 위해서는 예비 운전자로서 가져야 할 교통안전 교양 교육을 실시했다.

그런가하면 폐지되는 어르신용 비보호관찰소 등까지 찾아다니며 교통 안전 교육을 빼놓지 않고 실시했다.

지난해 교육통계를 보니 광주시에 사 업용 차량으로 등록된 운수종사자 1만

7285명에 대한 보수 교육은 물론 어린이(9만1857명), 학생(1만1509명), 어르신(4060명), 보호관찰소(962명) 등 모두 12만5673명에 대한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그런데도 교통 사망 사고 숫자는 늘었다. 2016년 85명에서 2017년 117명으로 증가했다. 이중 보행중 사망자가 67명으로 전년 대비 67.5% 증가했다. 차대 보행자 사고, 사업용 차량 사고 등도 대폭 증가했다.

솔직히 이런 결과를 보면 힘이 빠진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열심히 했는데도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했다. 또 미처 이곳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시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중학생들을 위해서는 화재나 지진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 실제나 다름없는 안전 체험 교육을 실시했고, 수학능력 시험을 마친 고3학생들을 위해서는 예비 운전자로서 가져야 할 교통안전 교양 교육을 실시했다.

또 유관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선진 교통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최근 광주시가 추축이 돼 교통 문화 지수를 개선하고자 하는 협업팀이 구성됐다. 경찰청, 5개 구청, 교통안전공단, 도로

교통공단, 광주·전남연구원, 광주교통문화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일방적인 지시나 명령에서 벗어나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뒤 해결점을 찾아가고 있다.

역할 분담도 이뤄져 있다. 도로 교통 시설물 개선이나 교통 환경 조성의 경우 광주시를 비롯한 행정기관이, 신호등 설치 및 교통 법규 위반자에 대한 계도와 단속은 경찰이,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및 선진교통 시민의식 계도는 우리 연구원을 비롯한 여타 기관들이 맡기로 했다. 일사적인 행사가 아닌 시스템 중심으로 굴러가는 것 같아 결과에 대한 기대도 어느 때보다 크다.

하지만 교통사고 줄이기와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은 교통 유관 기관·단체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안전한 도시 광주가 위협받지 않도록 운전자들의 배려·진절·안전 운전이 절실한 상황이다.

2만여 명이 광주를 찾은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7월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얼마남지 않았다. 외지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친절하고 안전한 광주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어찌 나 뿐이겠는가.

無 等 鼓

철의 장막이 무너지면서 종말을 고했던 냉전이 새롭게 시작되는 모습이 다. G2로 떠오른 미국과 중국이 무역(자본)과 무기(무력)를 양손에 들고 초강대국의 지위를 굳혀 가는 상황에서 러시아도 극초음속무기를 내세운 신무기 체계를 선보이며 G3체제의 구축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무력 분야에선 약소국인 우리나라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인권과 보편적 양심, 국제 질서에 대한 중요성이 확산하고 있다

고 하더라도, 막상 국가 간 분쟁이 격화되면 주먹이 먼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역사가 가르쳐 주는 진실이다.

투키디데스가 쓴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에는 유명한 ‘멜로스의 대화’가 나온다. 멜로스는 ‘말로의 비즈니스’가 제작된 섬나라로, 중립국을 표방한 소국(小國)이다. 당시 멜로스 동맹의 맹주이자 최강대국이었던 아테네는 대규모 군대를 동원, 멜로스에 상륙한 뒤 멜로스인들에게 ‘항복과 전멸’ 중에서 선택을 강요한다. 아테네인들은 “(전쟁과 같은) 문제들이 실제로 논의될 때 정의를 기준은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의 질에 달려 있다. 사실상 강자는 그들이

할 힘이 있는 것을 하는 것이며, 약자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항복을 촉구한다. 멜로스인들은 그러나 “보편적인 선(善)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당신들에게 이익”이라며 “우리는 그릇된 것이 옳은 편에서 있다”고 항복을 거부한다.

아테네인들은 냉소하며 “무엇이든 가능한 것을 지배하는 것이 자연의 일반적이고 필연적인 법칙”이라며 “당신과 다른 이들도 우리와 동등한 권력을 갖는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답한다. 이후 멜로스는 참패하고 철저히 파괴된다.

최근 중국 시진핑 주석은 “그 어떤 나라도 ‘중국이 자국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쓴 열매를 삼킬 것’이라는 헛꿈은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모든 우방을 ‘전략적인 적’으로 돌리는 모습이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의리나 양심을 기대하는 것은 허망한 일이다. 신(新) 데탕트(detente-긴장 완화)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이 깊이 명심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한다.

/홍형기 정치부장redplan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고문의 062-227-960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제 부 220-0663 (FAX 222-4938)	
편집 부 220-0649		문화 부 220-0661 (FAX 227-9500)	
정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FAX 227-9500)	
사회 부 220-0642		체육 부 220-0697 (FAX 02-773-9331)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